

# 아태지역 신분등록 · 인구동태체계 개선 고위급회의 및 제3차 UNESCAP 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 1. 회의 개요

- (회의장소) 태국 방콕 UN 컨퍼런스 센터 (UN Conference Centre)
- (출장기간) ‘12.12.9.(일) ~ 12.15.(토)
  - 고위급회의 : 12.10.(월) ~ 12.11.(화) (회의일정은 첨부1 참조)
  - 통계위원회 : 12.12.(수) ~ 12.14.(금)
- (출장자) 인구동향과 이재원 과장 및 이지연 서기관
  - 고위급회의 참가후 통계위원회 한국대표단\*과 현지에서 합류
    - \* 단장: 우기종 통계청장
    - 단원: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김용길 사무관, 김인혜 주무관(국제협력담당관실)
- (참가 규모 및 주요인사)

	고위급회의	제3차 통계위원회
주최	UNESCAP·WHO 및 18개 국제기구	UNESCAP
참가 규모	총 233명 - 46개국(회원 40개, 협력 및 기타 6개)* - 24개 기관(UNDP, WHO, ADB등)	총 191명 - 36개국 - 14개 국제기구등
주요 인사	Noeleen Heyzer(UNESCAP 사무부총장) Chanvit Tharathep(태국 보건부 부국장) Haishan Fu(UNESCAP 통계처장) Mohamed Fayaz(몰디브 내무부 장관) Mini Pollayil Alphonse(인도 신분등록처 부처장) Alan Lopez(호주 퀸즈랜드대 보건대학장)	Noeleen Heyzer(UNESCAP 사무부총장) Haishan Fu(UNESCAP 통계처장) Caremlita Ericta(필리핀 통계청 신분등록국장, 제3기 UNESCAP통계위원회의장) Malee Wongsaroje(태국 부처장) Zhasser Zarkinbayev(카자흐스탄 부처장) Margarita Guerrero(SIAP 소장)

\* 이하 통계위원회 관련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UNESCAP 제3차 통계위원회 결과보고로 같음

- (주요활동)
  -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체계 개선 아태지역전략안 검토 및 결의
  - 한국의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작성 절차 소개(세션 7, 지정토론)

## 2. 고위급 회의 주요 내용 및 대표단 활동 사항

- (배경) 아태지역 많은 국가들이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CRVS)체계의 결합으로, 인구동태통계를 등록자료가 아닌 센서스나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
  - CRVS체계는 개인의 인권 및 사회적 보호,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한 필수요건이자, 모든 경제사회정책의 기초자료원
  - UNICEF는 전 세계 출생미등록아 규모를 연간 5천1백만명으로 추산
  - WHO회의('11.11.)에서 모자보건정보및조사위원회(COIA)는 CRVS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74개국을 발표, 이중 20개국이 아태지역 소속
- (그 동안의 추진경과)
  - ('10.12) 방콕회의에서 UN새천년계획(MDG)과 연계되는 아태지역 인구동태개선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제기
  - ('11.5.) 국가법률 시스템 내에서의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UNESCAP 67/12 결의안 마련
  - ('11.6.) UNESCAP 통계국에서 지역전략계획안 초안 마련
  - ('12.10) UNESCAP은 WHO, UN아동기금, UN인구기금, UN개발프로그램, 세계은행 등 20여개 개발 파트너들과 CRVS 공동 지원 체계 수립
  - ('12.12) 국가신분등록체계, 인구동태통계 및 보건섹터간 고위급 회의 개최
- (고위급회의 목적) 2020년까지 아태회원국들의 신분등록체계 완전성(Coverage) 및 인구동태통계 품질 향상을 약속하는 지역전략계획(안) 결의
- (지역전략계획안) 아태지역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체계(CRVS) 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8개 분야별 목표 및 개선방향을 제시

### <UNESCAP의 회원국 CRVS 현황 평가 결과('12.9~11)>

\* 대상: 회원국 34개국

\* 방법: WHO 개발 조사표(Rapid assessment of national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

\* 출생등록의 완전성이 90% 이상 양호한 지역은 아태회원국의 68% 정도(한국은 99% 이상)

\* 시스템 평가 결과: 만족(32%), 부족(35%), 취약(18%), 기능장애(15%)

분야별 점수(3점 만점): 자료제공(2.44) 및 지역인프라(2.36) 점수 높고, 품질관리(1.73) 및 사망원인 통계 품질(1.91) 점수는 낮아

- “Make Every Life Count”라는 지역전략계획의 슬로건 아래, 2020년 까지 8개 목표별 모니터링 프레임웍을 제시(첨부2. 참조)

- 1). CRVS 가치에 대한 공공의 관심 환기
- 2). CRVS 개선에 대한 정치적 의지
- 3). 단계적 개선을 위한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 4). 정책, 법률 및 규정 개선 및 강화
- 5). 법률적 문서
- 6). 완전하고 신뢰할만한 인구동태통계 생산
- 7). 주요 이해관계 조정
- 8). 인구동태통계의 활용

□ (향후 계획) 지역차원의 조정 및 지원조직 설립, 평가보고서 작성

- 전략계획안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국 및 국제기구로 구성된 지역운영 및 조정그룹(RSCG), 지역지원사무소(RSO)설립할 예정
- 조정그룹에서 8개 목표별 모니터링프레임웍에 따라 평가보고서(연간 및 4년주기) 작성 예정
- 지역전략계획안의 정치적 승인을 위해 ‘13년에 장관급 회의 개최 예정

□ (대표단 활동) 주요 이해관계 조정(세션 7) 사례로 13개 기관의 행정 자료 활용한 인구동태 및 사망원인통계 보완체계 발표 및 질의응답

- UN통계처장 및 UNESCAP 통계처장 등은 한국을 모범사례로 평가
- 주요 질의 응답: 병원이외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사인 확인 및 행정자료 연계방법, 타기관 협력시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유지 방안 등

□ (기타 논의사항)

- (신기술 적용) 휴대폰을 이용한 디지털 출생등록의 장단점(WHO서태 평양지역사무소) 및 병원기반 온라인 출생등록 시스템 사례(태국) 발표
- (북한 대표단) 2013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계획 및 사망신고체계 설명(지역담당의사에 의한 사망확인서 발급, 가족에 의한 신고)

### 3. 시사점

- 전략계획안의 주요 골자인 아태 지역차원에서 회원국의 CRVS 체계 개선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 그간 한국의 CRVS 개선 노력은 지역전략계획안의 목적 및 방향과 일치
  - 통계청은 온라인 웹입력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인구동태 자료수집, 출생·사망 관련 13개 기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통계를 보완중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구동태통계 완전성 99%이상 유지, 아태 지역중 매우 우수한 수준(예, 일본 99%)
- 지역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아태국가들과 한국의 CRVS체계 개선 경험 공유 및 전파 필요
  - 한국에서 인구동태관련 SIAP(아태통계연구소)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 지역전략계획안 실행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향후 관련 회의에 가족 관계등록법 담당 부처인 대법원과 공동 참가가 바람직
  - UNESCAP 주최 아태지역전략계획안 관련 장관급 회의('13년)
  - UN통계처 주최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 권고안 개정안 회의('13년)

## <참고 1.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 개선 고위급 회의 일정>

월일	시간	의제
12.10. (월)	09:00-10:00	개 회 (a) 축사 Noeleen Heyzer(UNESCAP 사무부총장) (b) 개회사 Maire-Paul Kieny(WHO 보건체계및혁신 부국장) (c) 기조연설(태국 내무부 대표)
	09:50-10:30	커피브레이크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
	10:30-11:30	1. 아태지역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체계 (a) 패널토론: ADB, UNDP, UNWomen, UNHCR, UNICEF, WHO
	11:30-12:30	2. 지역적 행동을 위한 자극 (a) 국가별 신분등록 및 인구동태체계 평가 결과 (b) 인구동태체계 평가 및 개선전략 개발 사례
	12:30-13:45	중 식
	13:45-14:15	3. 지역 전략계획안 소개
	14:15-15:45	4. 보건통계 및 신분등록 분야를 위한 인구동태체계 개선의 합의 공개포럼
	15:45-16:00	커피브레이크
	16:00-17:30	5. 공공의 관심, 정치적 서약 및 투자 공개포럼: 지역전략계획안의 산출물(A,B,C)
	18:00-20:00	만찬(ESCAP & HMN) 인구동태체계 개선 사례 발표: 남아공화국, ADB
12.11. (화)	9:00-10:30	6. 완전성 및 고품질의 인구동태체계 공개포럼: 지역전략계획안의 산출물(D,E,F)
	10:30-10:45	커피브레이크
	10:45-11:45	7. 주요 이해관계 조정 공개포럼: 지역전략계획안의 산출물(G)
	11:45-13:45	중식 신분등록체계에 대한 혁신적 접근: 출생시 신분과 그 이후
	13:45-14:45	8. 인구동태통계 활용 제고 공개 포럼: 지역전략계획안의 산출물(H)
	14:45-15:15	9. 지역 전략 계획의 거버넌스
	15:15-15:30	커피 브레이크
	15:30-16:30	10. 단일 지역으로의 전진
	16:30-17:45	11. 2020년 서약 Make Every Life Count
	17:45-18:00	폐회

## <참고2. > 신분등록·인구동태체계 개선 지역전략안 모니터링 지표

목표	주요 내용	모니터링 지표 (아태지역 국가중 영역별 지표를 충족한 국가의 수)
A	CRVS 가치에 대한 공공의 관심 환기	a) 소외계층 및 원거리 주민을 포함하는 CRVS 국가적 홍보 전략 개발 b) 여성 및 공공서비스 소외계층 대상 국가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c) 신분등록의 장애요인 파악 및 극복방안을 포함한 복수영역간 액션플랜 개발 d) 국가 CRVS 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와 NGO 참석
B	CRVS 개선에 대한 정치적 의지	a) 공공을 위한 CRVS의 중요성에 대한 고위급 선언 명시 b) CRVS 시스템에 대한 복수영역간 종합적 평가 실시 c) 복수영역간 액션플랜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치적 서약들의 우선순위 개발
C	단계적 개선을 위한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a) CRVS 시스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 자원의 갭 및 효과성 향상이 가능한 방안선정 b) 복수영역간 액션플랜 실행을 위해 적절한 국가 재정자원 배분
D	정책, 법률 및 규정 개선 및 강화	a) CRVS 법률 관련 복수 영역간 리뷰를 통해 국제적 법률프레임워크 및 기준 준수 여부 평가 b) 복수영역간 액션플랜에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을 포함 c) 국제적인 법률 프레임워크 및 기준에 맞춰, 개정된 법률 및 규정적용 d) 국가통계 발전 전략과 같은 국가 전략과 연계성을 보장
E	법률적 문서	a) 인구동태사건 증명에 적합한 법적문서 발급을 위한 등록시스템 역량 강화 b) 인구동태사건의 등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 보건소, 종교단체, 학교의 역량을 활용 c) 개인의 국적 설정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고품질의 법적 문서 발급을 위한 CRVS 시스템의 역량 강화 d) 법적 기록물의 안전한 장기적 관리를 보증하기 위한 국가 역량 강화
F	완전하고 신뢰할만한 인구동태통계 생산	a) 인프라구조 확대: 가용성, 품질, 및 공평한 지역적 배분 b) CRVS 인적자본의 활용성 및 배분 향상 c) CRVS 및 인구동태사건 자료의 기록, 입력, 집계, 저장 및 분석 교육 및 훈련 제공 d) 국가적 설정 목표에 맞춰 출생등록의 완전성 향상 e) 국가적 설정 목표에 맞춰 사망등록의 완전성 향상 f) WHO 국제기준에 맞춰 사망진단서의 품질 및 사인코딩의 향상 g) 학문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CRVS 개선 촉진을 위한 한층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의 개발 및 평가
G	주요 이해관계 조정	a) CRVS 조정을 위해 대표성있고 기능적인 복수 영역간 위원회 설립 b) 국가 CRVS 조정 위원회의 생산적인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c) 복수영역간 액션플랜 실행여부 감시권한을 CRVS 조정위원회에 할당 d) 개선 추진경과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관련부처(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
H	인구동태통계의 활용	a) 등록자료에 기반한 인구동태통계를 기초로 국가통계, 보건, 발전 계획수립 b) 성·연령별 출생 사망자수 및 분포는 보고연도의 1년 이내에 공표 c) 성 연령 및 지역별 사망원인은 보고연도의 2년 이내에 공표 d) UN, UNSD 및 WHO에 최신 인구동태통계 보고